

# 금남로에 피는 ‘인권·봉사의 꽃’

## 21일 ‘광주 시민의 날’ 행사

### 어린이·이주민 등 인권현장 낭독 자원봉사자 5천명 참여 박람회도

민주의 상징인 광주 금남로가 오는 21일 인권과 자원봉사의 거리로 변신한다. 광주시는 광주인권현장 선포 5주년을 맞아 21일 제52주년 시민의 날 행사에 맞춰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인권과 놀자’라는 주제로 ‘인권체험 한마당행사’를 개최한다. 광주인권현장은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인권도시 광주의 미래를 담아 전문(518차)과 5장 18개조로 구성됐으며, 2012년 5월 제47회 시민의 날에 시민대표 21명에 의해 선포됐다. 이는

지자체 중 광주가 유일하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리는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광주인권현장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어린이, 청소년, 여성, 이주민, 장애인을 대표한 시민 5명이 인권현장을 낭독한다. 인권체험 한마당행사에는 캘리그라피 작가와 함께하는 인권가훈쓰기, 인권가족사진 찍기, 인권인형 만들기 등 체험행사와 아시아(캄보디아, 네팔)광주진로소 개소,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인권온부즈맨 운영, 인권정책 추진사례, 인권마을만들기사업, 인권교육 등 인권도시 광주가 걸어 온 길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인권작품공모전 우수작을 전시하고 차별·침해행위에 대한 광주시 인권온부즈맨 권리구제 방법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자원봉사자와 기관·단체가 마련한 생활 속 자원봉사를 한 자리에서 보고 느끼는 체험의 장이 열린다. 시와 광주시자원봉사센터,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2017 광주광역시 자원봉사박람회’가 같은 날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다. 자원봉사박람회는 주변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과 광주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올해는 ‘참여하는 시민, 함께하는 자원봉사’를 주제로, 청소년과 시민 등 자원봉사자 500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장에서는 자원봉사역사관을 운영하고 ▲투명 안전우산 만들기 ▲오카니아 목걸이만들기 체험 ▲에코화분 만들기 ▲

유해동식물 알아보기 등 주요 프로그램과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등 체험프로그램, ‘도전! 자원봉사 골든벨’, ‘자원봉사 그림그리기대회’ 등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개구 20여 개 동 자원봉사캠프와 광주지역 50여 개 자원봉사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부스에서는 자원봉사 홍보와 등록, 활동 안내 등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체험활동 프로그램에서 만든 투명 안전우산과 에코화분, 부채, 천연비누 등은 해외봉사활동 시 해당 지역에 전달하고, 광주지역 복지시설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2017 광주자원봉사박람회’ 참여와 체험행사 등 신청은 광주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vcgi.net) 또는 광주시자원봉사센터(062-613-5581~7)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형 평생학습’ 공모 사업당 1000만원 지원

광주시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계운)은 광주시의 비전과 고유한 특색을 반영한 ‘광주다운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광주형 평생학습 특화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제안된 특화모델을 시범 운영해 보는 것으로 해당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주제는 ▲광주의 문화 자원, ▲민중인권도시 광주 총 2개 분야이며, 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 당 1000만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 소재 평생교육법·개발법에 의해 등록된 기관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이며, 신청 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www.gje.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오는 5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공모사업 설명회는 19일 오전 10시에 진흥원(광산구 소촌동 시공무원교육원 4층) 강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62-600-5222)에게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 복지 행기는 ‘복동이’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현)의 대학생 서포터즈 ‘복동이’가 지난 17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복동이’는 재단과 복지사업에 관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광주복지재단 공식 서포터즈다. <복지재단 제공>

## 혁신도시 이전 직원들, 광주 탐방하며 정 붙이세요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이 ‘다정다감 남도탐방’을 통해 광주 문화를 체험한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남도의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정다감 남도탐방’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하루 코스로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총 5회) 실시하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국립5·18민주묘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근대역사문화마을, 대인예술아시장, 1913송정역시장 등 총 20여 곳

의 명소를 탐방한다.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년째를 맞은 ‘다정다감 남도탐방’은 남도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탐방지를 다양하게 준비하

고 김치타운 김치담그기, 평촌 도예공방의 분청사기 만들기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기획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행사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이 광주를 더 깊이 알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안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남도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청년 빚쟁이들, 한숨 접고 행동 먼저

### 광주경실련·청년유니온, 강사 교육·상시 상담

광주청년센터The숲의 청년파트너구축사업 ‘청년같이’에 선정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광주청년유니온이 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부채문제에 함께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 또한 광주 청년들의 경제적 자존감 향상과 생활경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청년생활경제 강사·상담사 교육인 ‘내지갑트레이너’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청년층에게 특화된 생활경제 상담사·강사를 육성해 청년에게 현명하고 건강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광주경실련 청년부채ZERO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청년부채 문제에 관심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교육 시작은 23일부터다. 모집인원은 20명 선착순이고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 참가

이외에 부채 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의 접수는 상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경실련 관계자는 “광주 청년부채ZERO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되는 내지갑트레이너 양성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청년들이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 이번 금융교육을 시작으로 지역에서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금융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경실련은 최근 조오섭 광주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일권 광주청년센터The숲 센터장, 안근원 대광새마을금고 이사장, 문정은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청년부채ZERO 캠페인 협약식을 개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영상통화로 골든타임 지킨다

### 광주소방본부 ‘스마트 응급처치’ 시범 운영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119종합상황실에서 영상통화로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를 시범 운영 중이다.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는 신고자가 119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결되며 의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상담요원이 영상통화로 전황에 현장 상황을 확인하면서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시스템이다.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영상통화로 전환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응급처치가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 영상통화로 바로 확인하고, 환자 상태를 볼 수 있어 시민들의 응급처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연 119종합상황실장은 “심정지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은 4분으로 환자 발생 초기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올바른 초동 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영상통화를 이용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응급처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폭염 대비 구급대 29개 지정 운영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발생 등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폭염 대응 체제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5개 소방서 29개 구급대를 폭염구급대로 지정해 모든 구급차에 생리식염수, 정맥주사, 열음조기 등 폭염 대비 장비를 갖추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 응급처치와 병원이송 등 폭염대비 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119

구급대에 실시간으로 운영질환자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 현황을 안내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현장 상황을 통보해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장용주 구조구급과장은 “폭염 기간에는 물을 많이 섭취하고,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휴식해야 한다”며 “운영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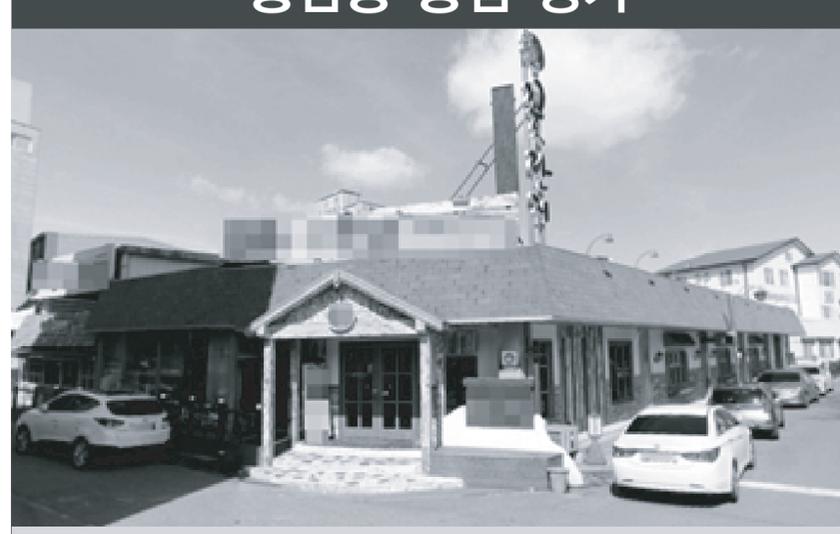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 풍암동 중심 상가



매매가격 1,700,000,000

**장성 서산면 송현리 (공장)**



대지 1361평    최저가 657,000,000  
건물 372평    감평가 938,000,000

**동구 대인동 근린주택 (4층건물)**



토지 128평    최저가 885,000,000  
건물 250평    최고가 885,000,000

**나주 문평면 옥당리, 둔사**



토지 1417평    최저가 224,000,000  
건물 484평    최고가 321,000,000

**화순 도곡면 천암리 (숙박시설)**



대지 978평    최저가 993,000,000  
건물 1294평    최고가 3,788,000,000

**서구 화정동 원릉(화정역인근)**



토지 94평    최저가 549,000,000  
대지 157평    감평가 784,000,000

**남구 서동 근린주택**



토지 79평    최저가 553,000,000  
건물 115평    감평가 553,000,000

**운영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전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차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평가액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